코스피 ▲+16.39 (2626.81) | 코스닥 ▲+5.17 (773.65) | 원·달러 환율 ▼-0.70 (1441.00) | 금리(국고채 3년) ▲+0.018 (2.641)

2025년 2월19일 수요일 전남일보

광주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범위 대폭 확대

시민 자동 가입…재난·사고시 지원
킥보드 사고 등 13개 항목으로 늘려
개물림사고 치료비 등 보장액도 상향
"시민 일상회복 돕는 사회안전망 강화"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재난·사고를 당한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광주시민안전보험'의 보장이 대폭 확대된다.

광주시는 광주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과 범위를 오는 21일부터 확대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을 지난해 11개 항목에서 올해 △개인형이동장치(PM) 상해사망(1000만원) △개인형이동장치(PM) 상해후유장해(1000만원)를 추가해 13개 항목으로 늘렸다.

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의 보장한도액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증액해 보험 운영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개물림 사고 때 응급실에서 치료받은 경우에만 지원하던 것을 일반병원(의원 포함)에서 치료받아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개물림 사고 진단 때 5만원을 보장하도록 조정했다.

이밖에도 △사회재난 사망(1000만원) △자연재해 사망(1000만원) △자연재해 후유장해(1000만원 한도) △화재·폭발·붕괴 상해사망(2000만원) △화재·폭발·붕괴 후유장해(1000만원 한도)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1000만원) △익사사고 사망(2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000만원 한도)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000만원 한도) 등 9개 항목은 기존 보장내용을 그대로 유지한다.

'광주시민안전보험' 대상자는 광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모두가 보장대상이다. 별도의 가입절차와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 가입되며, 광주 이외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다.

2025년도 계약(가입)기간은 2월21일부터 내년 2월20일까지(1년)이며, 피해를 입은 광주시민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사로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광주시민안전보험 청구방법 및 청구절차에 대한 내용은 광주시 누리집과 재난보험24(www.ins24.go.kr)에서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또는 광주시 안전정책관(613-4923)에 문의하면 된다.

광주시는 지난 2020년부터 광주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해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2021년 6월9일)' 피해자 8명에게 8000만원,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2022년 1월11일)' 피해자 4명에게 8000만원 등 총 375건, 11억6200여만원이 지급됐다.

이부호 안전정책관은 "자연재해, 화재·폭발·붕괴 등의 사고는 예기치 못한 형태로 우리의 일상생활을 위협하고 있고, 특히 사회재난으로 인한 인명 피해도 늘고 있다"며 "재난·사고 피해 때 빠른 일상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더 따뜻한 안심도시 광주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광주경총, 21일 탐험가 김현국 초청 강연

광주경영자총협회는 오는 21일 홀리데이인 광주호텔 3층에서 세계 최초로 모터사이클을 타고 시베리아를 단독으로 횡단한 김현국 탐험가를 초청해 '탐험가의 탄생, 유라시아 대륙횡단 도로' 주제로 제1676회 금요조찬 포럼을 개최한다.

김현국 탐험가는 세계탐험문화연구소 소장으로 세계 최고의 탐험가 단체인 '더 익스플로러스 클럽(The Explorers Club)'의 한국인 최초 정회원이며, EBS 세계테마기행 프로그램에 출현한 탐험가다. 이번 포럼 강연에서는 6번의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하며 쌓은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타인의 '새로운 도전과 꿈을 실현하는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광주경총 회원 기업 및 참석자들에게 강연한다.

광주경총은 저명인사와 각계 전문가를 초청해 경제, 경영, 문화예술 등 다양한 주제의 교육 및 교류의 장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오는 21일 금요조찬 포럼 참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홍보팀(062-654-3425)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권범 기자

광주은행 노사 "지역민 금융 안정에 전력"

중기·소상공인 지원 맞춤 대출
아파트 대출 등 우대금리 혜택

광주은행 노사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비롯한 지역민들의 금융 안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18일 광주은행 노조에 따르면 지역 대표은행으로서 위상 재정립과 100년 은행으로의 도약을 위해 다양한 대출상품 출시와 수신금리 혜택을 포함한 지역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먼저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유동성 공급을 위해 지난 1월부터 총 5000억원 한도로 최대 연 2.0%p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지역상생 중소기업 특화대출'을 출시했으며, 지역보증재단과의 협약을 통한 특례보증대출인 '기업튼튼보증서 특별대출'을 총 700억원 한도로 최대 연 1.9%p의 우대금리를 제공했다.

또 총 1000억원 한도로 최대 연 1.3%p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지역상생 아파트 특판 대출'을 출시해 봄철 이사 및 내집 마련을 준비 중인 실수요자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 자녀 양육에 필수 금융상품인 '아이키움적금Ⅱ'의 경우, 상품 우대금리 최대 연 1.8%p, 이벤트 우대금리 연 1.0%p 제공으로 최고 연 5.8%(3년제 기준, 기본금리 연 3.0%) 금리가 적용되는 이벤트를 실시해 지역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상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광주은행 홈페이지, 고객센터(1600-4000)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박만 광주은행노동조합 위원장은 "광주은행 노사는 상호 협력해 광주·전남 지역민에게 최선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금융 소외계층을 비롯한 금융 사각지대까지 돌볼 수 있도록 금융 돋보기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할 것이다. 그 첫 번째 신호탄으로 다양한 대출 상품 출시와 금리 인하정책을 발표했으며, 앞으로도 지역민과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권범 기자

금호타이어가 지난 16일 전북현대모터스의 홈구장인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공식 파트너십을 연장하는 조인식을 진행했다. **금호타이어 제공**

금호타이어, 전북현대모터스와 파트너십 연장

홈구장 등서 브랜드 노출

금호타이어가 지난 16일 전북현대모터스의 홈구장인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공식 파트너십을 연장하는 조인식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조인식에는 금호타이어 G.마케팅담당 윤민석 상무와 전북현대모터스 이도현 단장을 비롯한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금호타이어는 이번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2025시즌 동안 전북현대모터스 홈구장에서 열리는 리그 경기 중 LED 보드, 골대 옆 고정 보드, 홈페이지 등에 금호타이어 브랜드를 노출한다. 특히 전북현대모터스 선수들은 유니폼 상의 뒷면 하단에 금호타이어의 로고가 적용된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나설 예정이다.

또 경기장 내 고객 초청 프로그램 및 다양한 프로모션 활동을 통해 전북현대모터스 팬들과 소통하고 잠재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브랜드 마케팅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금호타이어는 국내외 다양한 스포츠 대회 및 구단을 후원하며 우수한 기술력과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 종횡무진하고 있다.

윤민석 금호타이어 G.마케팅담당 상무는 "국내 최고의 명문구단인 전북현대모터스와 파트너십을 연장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전북현대모터스와의 공고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금호타이어의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고, 브랜드 프리미엄화를 위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소영 기자

삼성전자, 글로벌 TV 시장 '19년 연속 1위'

매출 점유율 28.3% 기록
프리미엄·초대형·OLED 1위

삼성전자가 글로벌 TV 시장에서 19년 연속 1위를 달성했다고 18일 밝혔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24년 글로벌 TV 시장에서 매출 기준 28.3%의 점유율을 달성하며 2006년 이후 19년간 연속 1위를 이어나갔다.

삼성전자는 Neo QLED·OLED·초대형·라이프스타일 등 프리미엄 제품을 중심으로 한 판매 전략을 통해 19년 연속 1위 자리를 지켰다. 또 삼성 TV 플러스, 삼성 아트 스토어 등의 콘텐츠를 확대해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삼성 TV는 2500달러 이상 프리미엄 시장과 75형 이상 초대형 시장에서도 1위를 지켰다. 2500달러 이상 프리미엄 TV 시장에서 삼성은 2024년 매출 기준 49.6%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시장의 절반을 차지했다. 75형 이상 초대형 시장에서도 삼성은 매출 기준 28.7%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1위를 유지했다.

프리미엄 TV의 대표 제품인 QLED 시장에서도 삼성전자는 46.8%의 매출 점유율을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 글로벌 QLED TV 시장의 경우 275만대가 판매되며 전체 시장의 10.9%를 차지해 처음으로 점유율 10%를 넘었다.

또, 2022년 첫 출시 후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 OLED 시장에서도 삼성은 144만대를 판매하며 매출 기준 27.3%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이 같은 수치는 전년 대비 수량은 42%, 매출 점유율은 4.6%p가 증가했다.

한편,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렸던 CES2025에서 삼성전자는 AI 스크린이 나아갈 새로운 방향성인 삼성 '비전 AI(Vision AI)'를 공개했다. 비전 AI는 기존 TV의 역할을 확대해 사용자의 니즈와 취향, 의도를 미리 파악해 스스로 스마트한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해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사용자에게 맞춤형 스크린 경험을 선사한다. 삼성전자는 라이프스타일 TV '더 프레임'에 제공되던 아트 구독 서비스 '삼성 아트 스토어'를 올해 Neo QLED 및 QLED 모델로도 확대해 소비자들에게 개인 맞춤형 예술 경험을 더욱 넓게 제공할 계획이다.

박소영 기자

기아, '더 기아 EV9 GT·스탠다드' 계약 개시

기아가 플래그십 전동화 SUV EV9의 고성능 모델인 '더 기아 EV9 GT(The Kia EV9 GT, 이하 EV9 GT)'와 실용성과 경제성을 갖춘 '스탠다드' 모델의 계약을 18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기아는 이와 함께 기존 EV9 롱레인지 모델의 트림별 가격을 조정해 상품 경쟁력을 더욱 강화했다.

EV9 GT는 2023년 출시 이래 글로벌 시장에서 호평을 받아온 EV9의 우수한 상품성에 강력한 주행 성능을 더한 모델이다. 앞서 EV9은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자동차 어워즈인 '2024 세계 올해의 자동차'와 '2024 북미 올해의 차' SUV 부문에 선정되며 글로벌 시장에서 상품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지난해 LA 오토쇼에서 최초 공개된 EV9 GT는 강력한 사륜구동 시스템을 바탕으로 고성능 특화 사양을 적용해 주행의 즐거움을 선사함과 동시에 다양한 첨단 안전·편의 사양을 대거 탑재해 편리한 사용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EV9 GT는 합산 최고 출력 374kW(509마력), 최대 토크 740Nm(75.5 kgf·m)의 성능을 발휘하는 전륜과 후륜 모터가 탑재돼 정지 상태에서 단 4.5초만에 시속 100km까지 도달할 수 있다. 또한 99.8 kWh의 4세대 고전압 배터리가 탑재돼 408㎞의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 거리(복합 기준)를 확보했다. EV9의 판매 가격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세제혜택 후 기준 스탠다드 △에어 6412만원 △어스 6891만원, 롱레인지(2WD) △에어 6857만원 △어스 7336만원, 롱레인지(4WD) △에어 7205만원 △어스 7689만원이며 GT 라인은 7917만원, GT는 8849만원이다. (개별소비세 3.5% 기준, GT 모델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세제혜택 비대상)

박소영 기자